

우리 농축산물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

- 송미령 장관, 독립문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
- 같은 날 아동보육시설을 방문, 영천시장에서 구입한 농축산물 등 위문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 등 전달

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4일(금) 오전,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문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였다.

이번 방문은 지난 9일 발표한 「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」의 후속 조치로,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정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*를 실시하고 농할상품권**을 30% 할인하여 발행하고 있다. 환급행사를 실시하는 시장 목록 등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(sale.foodnuri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또한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(1670-0582)에 문의하면 된다.

* 국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 환급

**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농산물 전용 상품권으로, 설기간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

송미령 장관은 독립문영천시장을 돌아보며 사과,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,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하였다. 또한, 송미령 장관은 시장 내에 설치된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여 농산물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아보는 등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였다.

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“정부는 설 성수품 및 농축산물의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인 7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, 이 중 전통시장에는 236억원을 배정하였다”라고 하면서, “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전통시장 수급 동향 및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송미령 장관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을 방문하였다. 송미령 장관은 독립문영천시장에서 구입한 농축산물 등 위문품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하고 원생들과 관계자를 위로·격려하였다.

농식품부는 “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·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의 희망나눔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하경희 (044-201-2271)
		담당자	사무관	이효열 (044-201-2285)
<서무후생>	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승한 (044-201-1250)
		담당자	사무관	최은철 (044-201-1253)

